

“기술로 성장, 감성으로 연결”... 김연선 금탑·남미경 은탑 영예

(대한오케이스틸 대표)

(한만두식품 대표)

여성기업주간 5번째 개막

중기부·여경협, 신라호텔서 진행
조정식 국회의장 등 정·재계 참석
여성기업인 포함 500명 한자리

AI 아이돌 ‘이터니티’ 환영인사
W-인사이트 스피치·기술전시

박창숙 회장 “빠른 기술 넘어
바른 기술로 삶의 질 높여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은 1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회 여성경제인의 날’ 개막식을 열었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여성기업인을 위한 최대 행사로 올해 다섯번째를 맞는 여성기업주간이 ‘기술로 성장하고, 감성으로 연결하는 여성기업’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본격 막을 올렸다. 기업인으로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김연선 대한오케이스틸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은 남미경 한만두식품 대표가 각각 수훈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일 저녁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5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법정 행사인 여성기업 주간은 매년 7월 첫째주에 열린다. 행사 주관은 여경협을 포함해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함께 한다.개막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남인순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이달근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정·재계, 여성기업인등 약 500명이 자리했다.

국회의장이 여성기업주간 개막 행사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작년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참석해 여성기업인들과 자리를 함께 한 바 있다.

이날 개막식 오프닝은 여성기업 펠스나인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AI 아이돌 ‘이터니티’가 환영인사를 전해 색다른 경험을 줬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수

많은 여성기업인이 각자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기술과 혁신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이며 그 해답은 바로 여성기업에게 있다”면서 “여성기업은 생활속 불편과 시대의 흐름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그 문제를 기술로 풀어내며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가고 있다. 빠른 기술을 넘어 바른 기술로, 모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여성기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탑훈장을 수훈한 김연선 대표는 지난 47년간 오직 철강 외길만 걸은 여성기업인으로, 냉연 철강재 제조 및 유통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제조 기반을 충남 당진과 경남 김해 등 지방 거점으로 확장함으로써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업적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은탑훈장을 받은 남미경 대표는 술한 역경을 딛고 일어난 ‘보험왕’ 출신 여성기업인이다. 대기업 위주의 냉동만두 시장에서 갈비만두, 주꾸미만두 등 고정관념을 깨는 이색적인 제품군을 잇달아 흥행

시키며 기업을 성장시키고 다양한 가족친화적 행복 일터를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 산업포장 1점, 대통령 표창 4점, 국무총리 표창 7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했다.

이병권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고 소통하는 능력이 기업의 최종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우수한 기술력과 공감적 리더십을 갖춘 여성기업인들이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경청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막식에서 진행한 W-인사이트 스피치’에선 기술로 일상과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장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두 여성 창업자인 허드슨AI 신현진 대표와 이너시아 김효이 대표가 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또 행사장 로비에는 펠테크, 바이오, 돌봄, 안전, 문화, 콘텐츠 등 기술에 감성을 더한 전시 부스도 마련해 참석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bada@metroseoul.co.kr



metro

에코프로, 유증 부담에도 인니 니켈 투자속도

BNSI 제련소 지분 39% 확보
연 9만톤 니켈 수급권 기반
원료·재활용 순환구조 구축

에코프로가 유상증자 추진에 따른 투자자 우려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니켈 수급권 확보 없이는 양극재 원가 경쟁력과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강화에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 그룹은 인도네시아 IGIP 산업단지에서 건설 중인 BNSI 제련소 지분 39%를 확보해 대주주로 참여한다. 에코프로는 이번 투자를 통해 연간 9만톤 규모의 니켈 생산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양극재 사업의 원

료 조달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에코프로가 유상증자 부담에도 BNSI 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니켈 조달 경쟁력이 배터리 소재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니켈 수급권을 확보해야 양극재 원가 부담을 낮추고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중국은 완성차, 배터리 셀, 배터리 소재, 핵심 광물물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다. 반면 한국은 배터리 셀과 소재 경쟁력은 갖췄지만 니켈 등 핵심 광물 조달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광물자원공사 개발지원본부장을 지낸 강천구 인하대 교수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채용하는 한국 전기차 회사 입장에서

니켈은 핵심 소재인 만큼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제련소 투자를 통해 확보한 니켈은 전기차 산업 전체의 밸류체인을 강화할 것”이라며 “니켈은 전기차뿐 아니라 스테인리스강, 항공우주·방산용 초합금 등에도 중요한 광물이어서 국가 산업 경쟁력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니켈 투자와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결합해 양극재 중심 사업 구조를 확장하고 있다. 2020년 포항에 리튬 가공,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인도네시아 제련소 투자를 통한 ‘자연광산’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도시광산’을 결합하면 원료 확보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순환형 사업



현재 건설 중인 인도네시아 솔라웨시 BNSI 제련소 현장 전경. /에코프로 그룹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최근 중장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도시광산과 자연광산을 결합해 2030년에는 에코프로의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가 구축될 것”이라며 “양극재 제조만 하는 에코프로비엠은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시멘트협회-KCL 저탄소 시멘트 개발 품질관리 체계 강화

한국시멘트협회가 친환경 저탄소 시멘트 기술 확보를 통해 위기 돌파에 나선다. 한국시멘트협회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KCL에서 ‘시멘트산업 저탄소 전환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시멘트산업의 자원순환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공동 발굴·수행 ▲신공정·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기술 개발과 표준화 협력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AI/AX(AI Transformation) 기반의 시멘트 품질관리체계 구축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김승호 기자

LS마린솔루션, 차세대 포설선 건조 착수

HVDC·해상풍력 시장 대응

LS마린솔루션이 차세대 해저케이블 포설선 건조에 착수하며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해상풍력 전력망 시장 공략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포설선을 추가로 확보해 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 등 대형 해저 전력망 사업 대응력을 높이고 미국 해저케이블 생산법인 LS그린링크와 연계한 해외 시장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LS마린솔루션은 튀르키예 테르산 조선소에서 차세대 해저케이블 포설선 건조 착수를 알리는 강제 절단 행사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강제 절단은 선박 건조의 첫 단계로, 본격적인 제작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이번 포설선은 지난해 5월 투자 계획이 발표된 선박으로, 약 1년간 설계와



김병욱 LS마린솔루션 대표(왼쪽부터), 누레틴 파수(Osman Nurettin Paksu) 테르산 조선소 대표, 이근창 LS마린솔루션 통신사공지원부 문장이 신규 포설선 착수 기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마린솔루션

제작 준비를 거쳐 건조에 들어갔다. 2028년 상반기 인도를 목표로 하며 HVDC와 해상풍력 전력망 등 장거리·대규모 해저케이블 시공에 특화된 전용 선박으로 제작된다.

/원관희 기자

SK지오센트릭, 중소 고객사 폴리머값 인하

PE·PP 등 톤당 최대 20만원 낮춰

SK지오센트릭이 중소 고객사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폴리머 제품 공급가를 낮춘다. 정부의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 정책과 연계해 석유화학 제품 가격 부담을 줄이고 내수 시장 회복을 뒷받침 하려는 취지다.

SK지오센트릭은 중소기업 고객사에 공급하는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 폴리머 제품 가격을 톤당 최대 20만원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공급가 인하는 6월 출하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리머 제품은 포장재, 생활용품,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쓰

이는 기초 소재인 만큼 공급가 인하가 고객사의 원가 절감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 조정은 정부의 나프타 수급 안정화 정책과도 맞물려 추진된다. 정부는 석유화학 기업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계약 물량에 대해 전정 이전 가격 대비 상승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SK지오센트릭은 이번 납품가 인하를 통해 정부 지원 효과가 실제 수요 기업과 석유화학 제품 시장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고객사의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중기중앙회-기정원 중소 제조AI 상용화 870억 투입 본격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 인공지능(AI) 제조 혁신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기중앙회는 기정원과 ‘제조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운영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지원사업으로, 36개 과제에 올해와 내년에 총 87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산업 안전 및 공정·경영 혁신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지원사업 과제 관리 ▲ 뿌리업종 및 협동조합 과제 현장안착 지원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